

4월25일(월)/갈 5:13~15

제목: 물어뜯으면 피차 망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한 것은 교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었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이제부터 자기 욕망대로, 자기 본성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 그들은 반문 할 수 있었다. 이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그 자유로 욕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며,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며, 서로 물어뜯지 마십시오. 그러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했다(13~15절). 교리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온다. 그것은 서로 물어뜯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말이다. 누군가를 격렬하게 힐난하는 것으로는 결코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 여기서 ‘피차’ 라는 말이 중요하다. 어떤 한 사람을 물어뜯으면 물어뜯기는 사람 뿐 아니라 물어뜯는 사람도 망한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격렬하게 힐난하기 전에 꼭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를 힐난하려 한다면 자기도 망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4월26일(화)/갈 5:16~24

제목: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바울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의롭게 사는 길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16~17절).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18절). 이어서 바울은 욕정이 만들어내는 건본들을 열거하였다. 그것은 음행, 추행,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이다(19~20절). 이런 것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21절).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므로 그의 삶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이다(22~24절). 바울은 인간의 본성을 잘 간파하였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복잡한 존재가 된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인간은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부터 죄에 눈 뜨기 시작한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그것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것은 크리스찬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크리스찬은 비록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도 성령님께 자신의 모든 인격을 위탁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4월27일(수)/갈 5:25~26

제목: 잘난 체 안하면 싸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욕정의 일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성령의 열매에 설명할 때 항상 ‘너희’란 말로써 교훈 하였다(2절, 7절, 10절, 12절, 13절, 18절).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부분을 결론지으면서 자신까지 포함하는 ‘우리’란 표현을 사용하여 권면의 효과를 최고로 높이고 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25절) “너희는 성령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삽시다”라는 말은 큰 감화력이 있다. 여기서 ‘행하다’는 말은 ‘행렬을 지어 걸어간다’는 뜻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님과 같이 인생길을 걸어 가게 된다는 의미이다.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은혜로우며 복된 길일까? 이어서 바울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26절)고 하였다. 여기서 ‘헛된 영광’은 ‘잘난 체’를 의미한다. 욕정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잘난 체이다. 잘난 체 잘하는 사람의 주변은 항상 노여움이 있고 투기가 있다(26절). 잘난 체 하는 사람의 주변은 항상 시끄럽다. 우리가 항상 잘난 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질투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4월28일(목)/갈 6:1~5

제목: 짐을 집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타인의 잘못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절).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엄격하게 심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선한 사람에게 더욱더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선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다소 냉정하며 비동정적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사람이 넘어졌으면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 참 크리스찬의 짐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2절). 또 사실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만심을 가져서 안된다(3절). 바울은 여기서 이러한 자만심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하였다. 자만심을 피하는 길은 자기가 한 일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4절). 자만심을 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가 성취한 바를 타인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바와 비교하여야 한다. 비교하고 싶으면 가장 높은 기준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 크리스찬은 이 부분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5절). 이 짐은 우리가 절대로 남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이 짐은 모든 크리스찬이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자기가 즐겁게 져야 한다.

4월29일(금)/갈 6:6~10

제목: 때가 되어야 매겨집니다.

바울의 윤리적인 가르침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명료하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7절).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둔다(8절). 자기 육체에 공을 많이 들인 사람은 그 육체가 썩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없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린 사람은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옳은 일에 투자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때가 되면 그 노고의 대가를 거두기 때문이다(9절). 그러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한다(10절). 사람은 100%순수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상을 제시하고 따라오라고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동안 옳은 일을 많이 하였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답이 너무 늦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확하고 공평한 저울위에 올려진 그 인생의 값이 곧 매겨지기 때문이다. 옳은 일 중에서 특히 사람에게, 특히 동료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선행이 중요하다고 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